

중국 공산당의 사고특성은 무엇인가? (런재 4)

(4) 폭력 고취, 당을 위한 희생 강요

모택동은 이렇게 말한다. “혁명은 손님을 청하여 밥을 먹는 것이 아니고, 문장을 짓는 것이 아니며, 그림을 그리고 꽃을 수놓는 것이 아니기에, 그렇게 품위가 있을 수 없고, 그렇게 차분하고 레의있고, 그렇게 온화하고 공손하게 량보할 수는 없다. 혁명은 폭동이고 한 계급이 다른 한 계급을 뒤엎는 폭력 행동이다.”

등소평은 천안문 사건 때 “20만명을 죽여 20년 안정과 교환하자.”라고 말했다.

강택민은 “육체를 소멸하고, 명예를 더럽히며, 경제를 파산시켜라.”라고 말했다.

공산당은 폭력을 고취하여 역대 운동에서 무수한 사람을 죽였으며 인민들을 다음과 같이 교육하였다. “적에 대해서는 엄동설한과 마찬가지로 랭혹하고 무정(無情)해야 한다.” 중국의 국기인 홍기(紅旗)는 흔히 ‘열사들의 피로 물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붉은 색에 대한 이런 숭배는 실제로는 선혈(鮮血)에 대한 숭배이다.

공산당은 영웅모범인물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당을 위해 희생할 것을 요구한다. 연안 시기 아편을 만들기 위하여 가마 불을 지키다가 죽은 장사덕(張思德)은 모택동에 의해 “그의 죽음은 태산보다 중요하다.”고 평가되었다. 리성을 잃은 시기에 사람들은 “첫째로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둘째로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당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은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감히 해와 달에게 새로운 하늘에서 빛낼 것을 명령한다.” 등의 ‘호언장담’하는 구호로 물질이 부족한 시대에 사람들의 광기를 만족시켰다.

70년대 말 베트남 공산당이 군대를 파견하여 중국 공산당이 수년간 키워온 사악한 크메르루주 정권을 전복시켰다. 중국 공산당은 이에 대노(大怒)하였지만 중국과 캄보디아가 린접한 국경이 없어서 직접 파병하여 크메르루주 정권을 지원할 방법이 없었다. 이리하여 중국 공산당은 ‘대(對) 베트남 자위(自衛)반격전’이라는 명분으로 베트남 공산당 정권에 작은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중국과 베트남 국경에서 전쟁을 발동하였다. 전쟁 결과 수만 명의 중국병사가 공산당 간의 투쟁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그들의 죽음은 실로 국가령 토나 주권과는 추호의 상관도 없었다. 몇

년 후에 중국 공산당은 아주 싼 대가 - ‘피로 물든 풍채(風采)’라는 제목의 노래로, 전쟁에서 무고하게 생명을 잃은 천진한 젊은이들에게 ‘혁명영웅주의 정신’이라고 추모하였다. 그러나 공산당은 1981년에 154명의 중국 군인들의 희생을 통해 획득한 광시성(廣西省) 파카산을, 베트남과 국경 문제를 토의하는 회의에서, 쉽게 베트남에 넘겨 주었다.



2003년 사스가 중국에 유행했을 때, 중국 공산당은 젊은 여자 간호사들을 ‘전선(戰線) 입당’시켜 병원에 가둔 채 사스 환자를 돌보게 하였다. 이것은 젊은이들을 생명의 위험이 있는 최전선에 밀어 넣고 공산당의 이른바 ‘첫째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둘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빛나는 형상’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공산당 지도자 강택민은 도리어 목숨을 살리고 사스를 피하기 위하여 북경에서 상해로 대피 했다. (“9평공산당”에서 발췌)

일본도쿄에서 4300만 용사들이 “3퇴”함을 성원



용사들이 ‘3퇴’(퇴당, 퇴단, 퇴대) 를 성원하는 대시위행진을 거행했다. (윗사진)

지난
9월14일,
일본퇴당
센터에서
는 도쿄
에서
4300만

핀란드 헬싱키 기차역전 옆에서 파룬궁학원들이 선의를 전했다



지난 9월에 핀란드수도 헬싱키기차역 옆에서 파룬궁학원들이 진상 이야기활동을 벌려 선의를 전했다. 구름처럼 몰려든 관중들은 5조공법시범동작과 진상 자료를 보고 주동적으로 파룬궁을 지지한다고 서명했으며 《파룬궁은 좋다! 파룬궁은 좋다!》라고 하는 웨침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다시 젊어진 할머니



연변의 어느 한 산촌에 올해 79세인 할머니가 살고 있다. 3년전만 하더라도 할머니는 신경쇠약, 위궤양, 심계, 좌골신경통, 신장염등 잡병이 발작하여 온갖고생을 다했다. 나중에는 할머니는

뇌혈전병까지 걸려 6차례나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병세가 더 악화되어 정신이 혼미해지고 혀가 굳어져 말할 수도 없었고 병석에 누워 눈물을 흘리며 한숨만 쉬었다.

할머니가 절망속에서 허덕일때 한 파룬궁학원이 그에게 파룬궁진상과 파룬궁의 신비함을 이야기해주면서 파룬대법을 수련하라고 권했다. 그리하여 2005년7월1일부터 할머니는 “전법륜” 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파룬궁수련을 시작했다. 3개월이 지난후 과연 그에게 기적이 나타났다. 약한알도 먹지않고 주사 한대도 맞지 않았는데 극도로 그를 괴롭히던 병증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병석에서 일어나 자유롭게 말하며 걸어다닐수 있었다. 그후 3년동안 수련을 견지해온 할머니는 지금 흰 머리칼이 검게 되었고 윤기까지 돌았으며 높은 도수의 톱보기를 벗어 버리고 글을 읽을수 있으며 기억력도 대단히 좋아져 “전법륜” 책을 10 번이나 외웠으며 번잡한 집들을 도맡아 해도 힘 든줄을 모른다.

지난날 “병주머니”였던 할머니가 오늘은 젊은 할머니로 변하는 모습을 친히 목격한 친척들과 마을사람들은 법륜대법의 위력과 신비함에 감탄 했으며 그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자각적으로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다.

미국국회연구토론회에서 장이평은 파룬궁학원에 대한 박해를 끝낼것을 호소

지난 9월12일 오후, 미국국회 중의원인권소조에서 올림픽후 중국 및 아시아국가의 인권상황연구토론회를 소집했다. 청을 받고 회의에 참석한 파룬궁 대변인 장의평(张而平)은 발언에서 《파룬궁은 수련단체입니다. 우리들이 제일 관심하는 것은 중공이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박해를 끝내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하고 나서 《올림픽전야에 탄압이 가심화 했는바 수만명 파룬궁학원들이 불법적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표면상에서는 이전처럼 떠들석하게 파룬궁을 박해하지 않은 것 같지만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종래고 멈춘적이 없우며 실제로 더욱 더 음흉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연변 박해 소식

- 화룡시투도파출소 악경들이 지난 9월9일 파룬궁학원 정보화(郑宝华)집에 뛰어들어 휴대용 컴퓨터 2대,프린터 2대,현금18000원을 빼앗아 갔다.
- 지난 9월16일,화룡시흥룡에 살고 있는 파룬궁학원인 한 할머니는 악경들에게 랍치되었다.
- 지난 9월18일 오후, 화룡시 파룬궁학원 필진군(毕振军)과 최씨 아줌마는 악경들에게 납치되어 화룡시 아동저수지세뇌반으로 압송되었다.
- 최근 화룡시 송하평 파룬궁학원 7명이 악경들에게 랍치되었는데 그중 4명이 로교소에 압송되었다.
- 지난 9월19일 연길시 요계진(姚桂珍)은 악경들에게 랍치되었다.
- 화룡시 8가자 파룬궁학원 손경국(孙庆菊)은 지금 연변 정신병원에 갇혀 박해를 받고 있다.

선악에는 보응이 있는 법이다. 박해에 참여 한 모든 악인들은 즉각 박해를 중단하고 자신의 생명에 대해 책임지기 바란다.

채성: 화룡시국보대대 부대장: 13904463353
장보화:화룡시국보대대 교도원: 13904468610
김동은:화룡시국보대대 경찰원: 136386989953

